

진정한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믿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과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영생도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부(refuse)하기까지 했습니다(요 5:40, NIV).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영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요일 5:11). 하용조 목사는 영생을 가리켜 '단순한 영원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요 5:24).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유한함과 문제들에 절망하지 않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양도(yield)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도록(let go)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최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 ① 내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은 아닙니까?
- ② 영생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